Living the Lotus 5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4

VOL. 224

Rissho Kosei-kai of Seattle

Living the Lotus
Vol. 224 (May 2023)

발행: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03-5341-1124 / Fax:03-5341-1224
E-mail: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아까가와 케이치
편집장: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편집 스텝: 국제전도부 스텝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유화한 사람의 마음은 자유롭다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鑛)

소의 멍에를 벗긴다

매년 이 계절이 되면, 논을 갈고 써레질을 하는 등 모내기 준비를 도왔던 옛날이 그리워집니다. 초등학교 5,6학견이나 중학교 1,2학년 즈음에, 밭을 가는 소의 코뚜레를 잡고 소를 끄는 코잡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몸집이 커다란 소가 '후-'하고 거친 콧김을 뿜어낼 때는 좀 무섭기도 했지만, 그 소도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지내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니가타현(新潟県)의 스가누마(菅沼)에 개조님의 생가를 처음 갔을 때, 현관문을 열고 어두침침한 집안으로 한 걸음 내딛는데, 코에 훅 하고 들어오던 마구간 냄새가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소와 말과 일체가 되어 생활을 하는 나날을 보냈던 저에게 있어, 석존의 말씀을 정리한 '슷타니파타'의 '유화(柔和)란 소의 멍에를 벗기는 것'이라는 구절은, 키우던 소나 말과의 교류와 거기에 생겨나는 배려의 마음으로 강하게 이어지는 인상적인 것입니다.

논을 가는 소에게 씌운 멍에라는 장비를, 농삿일을 마치고 소의 몸에서 벗겨낼 때에 드는 마음은 '아, 오늘도 많은 일을 해 주었네. 고마워'하는 소에 대한 감사와 위로였습니다.

그것이 '상냥하고 온화한 모습'을 의미하는 '유화'라는 한 단어로 응축되어, 가족의 일원인 소를 농부가 배려하듯, 모든 사람이 '상냥하고 온화하기를' 하고 바라신 석존의 마음 또한,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착을 놓으면

'멍에를 벗는다'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들 인간이 자신을 꽁꽁 묶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대라든가 사물에 대한 집착 등, 뭔가에 사로잡힌 마음이 많은 우리들 인간은, 동물이나 실물처럼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자재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 집착에 의해 고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만, 불보살과 같은 유희삼매(遊戲三昧)의 경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마음의 집착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안달복달하는 마음이 줄어든, 느긋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싶다고 누구라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에도(江戶)시대의 선승(禅僧)인 시도부난(至道無難)선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부처가 되는 연습'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시며, 평소에 무엇을 하든 집착하지 않으려고 수시로 노력해 오셨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마을에 암자까지 묶어 잡아둘 정도로 선사를 존경하는 유복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의 딸이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추궁하자 딸은 "스님께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인은 불같이 화를 내며 곧 선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온갖 욕설을 퍼붓고는 마을에서 쫓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혼날까 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님이라고 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하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황급히 선사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방긋 웃으며 "이슬만큼도 탓할 이유가 없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자비로우며, 유화하고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 중 한 사람은 틀림없이 이 시도부난(至道無難)선사가 그 사람일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도부난>이란, 선어(禪語)의 하나로 '진실에 이르는 길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이 좋다든가 저것이 싫다고 하며 이것저것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않는다면 그것으로 좋다 - 그것이 불도(佛道)라는 것입니다.

개조님께서는 유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형식뿐인 방긋방긋 웃는 얼굴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유화해지려고 애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정신에 녹아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처와 같이 유화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염하면서, 모든 일을 가능한 한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교성』 2024년5월호

Interview

5월호와 7월호에서는 2024년 3월에 입정교성회 학림을 졸업한 2명의 청년을 인터뷰한 내용을 전달해드립니다.

학림(學林)이란, '실천적 불교' 와 '여러 종교간 대화·협력'을 위한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불교, 법화경에 근거한 전인(全人)교육을 통해서 실천적 불교 지도자를 시작으로, 국제종교 협력, 평화구축 등에 종사하는 국내외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림 영어 웹사이트

나라와 민족, 종교의 차이를 극복하여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세계를

입정교성회 방글라데시 교회 바루아 무쿠타

학림에서 지낸 2년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숙사에서 지낸 공동생활을 처음 경험했던 것이 가장 큰 추억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말과 문화 등의 벽이 있어서, 제 기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기와의 인간관계로 인해 고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초, 제가 인사를 해도 답을 해 주지 않거나, 아무리 말을 걸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런 태도를 취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그 동기와의 관계를 당시의 오오토모 차장님께 상담을 하였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 '내가 어떻게 바뀌면 되는 걸까?'하고 자문자답을 하면서, 상대방의 언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쪽에서 적극적으로 말을 걸거나 상대방 입장이 되어 듣는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이었지만,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가 온화해지면서 서로의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변화해 갔습니다. 저는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바뀜으로써 지금의 상황과 관계는 바뀌어 가는 구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무쿠타씨

학림 승가들과 함께 특별 강사님을 맞이하며
(학림강당、앞줄 오른쪽 끝이 무쿠타씨)

학림에서 불교와 법화경을 깊이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큰 배움은 무엇입니까?

법화경의 제바달다품에 있는 '제바달다가 선지식'이라는 구절이 가장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몇 번이나 노린 제바달다를 원망하기는 커녕, 오히려 제바달다 덕분에 점점 깨달음을 깊이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제바달다를 좋은 벗으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철저한 배례행을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차별과 편견의 시각이 아닌 존경과 존중의 시각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졸업 연구 발표회에서는 '일승정신을 실천한다~현지인과 로힝야 난민과의 평화적 공존'을 테마로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이 테마를 선택한 이유를 가르쳐주세요.

저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에 살고 있는 불교도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가 19살 때쯤, 신문과 티비에서 보도된 이슬람 교도의 소수민족인 로힝야 난민에 대한 내용을 보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로힝야 난민을 받아 들이는 것에 대한 불안이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미얀마는 불교국가이므로 나쁜 행위를 할 리가 없으며, 문제는 로힝야 부족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거기에다 주위 사람들이 로힝야족에 대해 가지고 있던 비판적인 태도까지 한수 더해져, 저는 로힝야 난민에 대해 배타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림(學林)에 들어오고 나서 제 생각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화경의 제바달다품과 여러 종교간의 대화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로힝야 난민에 대해 비판만 해왔던 제가 과연 불교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로힝야 난민과 콕스바자르 시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길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이 테마를 선택하였습니다.

귀국 후, 이 테마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여 행동에 옮길 예정입니까?

2017년 여름, 불교도가 90%를 차지하는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도인 로힝야 사람들이 극심한 무력탄압과 박해를 당해 방글라데시로 피난온지 6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국내에는 약 97만명의 난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 제가 살고 있는 콕스바자르에는 약 93만명의 사람들이 캠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반 이상이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현재 UN기관과 NGO(비정부기관) 사람들이 로힝야 난민의 인도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덕분에 일본어를 할 수 있으므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행동을 일으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일본의 NGO

포교실습중, 후쿠이 교회에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숙사에 입실하는 날, 학림 승가들과 함께
(앞 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무쿠타씨)

단체에 들어가 난민 캠프에서 지원활동에 종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 교회 콕스바자르 지부의 청년들과 함께 난민 캠프 주변을 청소하는 보란티어 활동을 하거나, 지역 시민들에게 로힝야 난민에 대한 관심을 깊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적인 벽을 극복한다는 목적으로 불교와 이슬람교와의 대화·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모든 사람은 부처와 같은 고귀한 존재이며, 서로가 서로 인정하고 지탱시켜주는 '일승 정신'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로힝야 난민과 콕스바자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됨으로써 달성되는 계속적이고 끈기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 종교의 차이를 극복하여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세계를 목표로 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저는, 졸업 후 입정교성회에 봉직원으로서 일 하고 싶다는 생각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교 실습으로 후쿠이 교회를 방문하여, 매일 신자분들의 포교활동과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개조님과 회장선생님께 어떻게 보은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귀국 후에는, 학림에서 배운 것을 일과 교회 활동에서 살려서 실천할 것입니다.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해외 유학을 하는 선택지등,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일본어 능력시험 1급에 도전하여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려워서, 오르기 힘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국 후에는 우선 필사적으로 제 자신의 일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여, 가능하다면 입정교성회에 봉직하여 더욱더 깊이 가르침을 배우고, 장래에는 국제전도나 국제 종교협력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역할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도로 인도하는 보살행

입정교성회 개조
니와노 닛쿄

본래 '역할' 이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게 누구든, 그 사람만의 충분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 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공기나 물, 흙 등 무생물까지도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렁이는 낚시 먹이로만 쓰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당치도 않습니다. 지렁이는 끊임없이 전방 구멍으로 흙을 먹고 후방 구멍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항상 흙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멍이 바람을 통하게 하여 지렁이가 먹은 흙은 비료가 되어 식물의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지렁이보다도 더 작은 흙 속의 미생물도, 실은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티 스푼의 흙에는 무려 수억개의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 미생물은 떨어진 낙엽과 동식물들의 시체를 분해하여 흙으로 되돌리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작용이 없었다면 지구상은 동식물의 시체로 뒤덮여 우리들이 살 장소도 사라질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 조차도 이렇게 타를 위해서 훌륭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세상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뛰어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자신을 위한 작용이 자연히 타를 위한 작용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만은 의식을 가지고 타를 위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연스러운 역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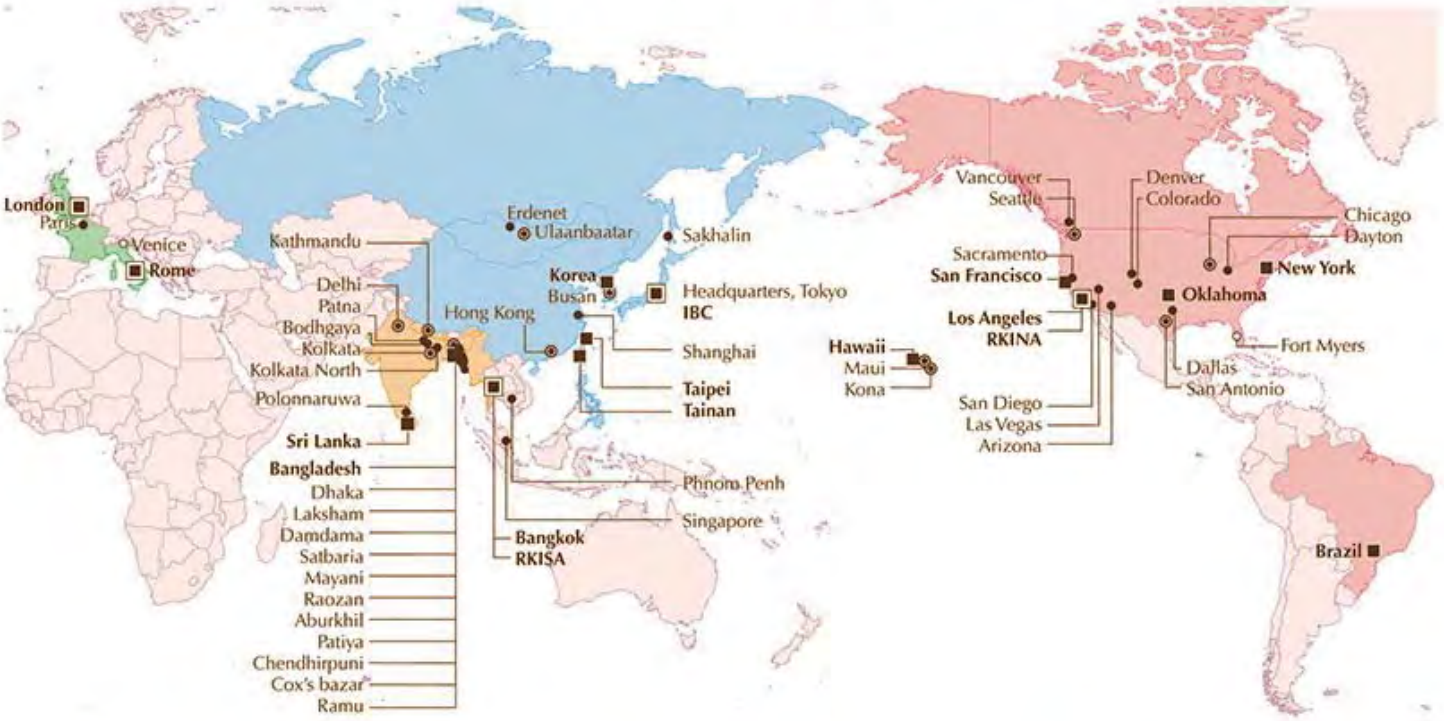
예를 들면 보란티어 활동도 그 중 한 가지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활동은 말 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을 불도로 인도하는 보살행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신 '일대사인연' 에 따르는 작용입니다.

니와노닛쿄(庭野日敬) 평성 법화집1『보리의 싹을 틔움이라』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A Global Buddhist Movement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twitter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